



세상의 허영에 대한 우의(寓意)
피터 보엘(Pieter Boel, 1622~1674)
1633, 캔버스에 유채, 207.5x261cm
팔레 데 보자르 드 릴, 프랑스 릴

입당송 | 시편 70(69), 2.6

하느님, 저를 구하소서. 주님, 어서 저를 도우소서. 저의 도움, 저의 구원은 주님이시니, 주님, 더디 오지 마소서.

제1독서 | 코헬 1,2; 2,21-23

화답송 | 시편 90(89), 3-4.5-6.12-13.14와 17(◎ 1)

◎ 주님, 당신은 대대로 저희 안식처가 되셨나이다.

○ 인간을 먼지로 돌아가게 하시며 당신은 말씀하시나이다. “사람들아, 돌아가라.” 천 년도 당신 눈에는 지나간 어제 같고, 한 토막 밤과도 같사옵니다. ◎

○ 당신이 그들을 쓸어 내시니, 그들은 아침에 든 선잠 같고, 사라져 가는 풀과 같사옵니다. 아침에 돌아나 푸르렀다가, 저녁에 시들어 말라 버리나이다. ◎

○ 저희 날수를 헤아리도록 가르치소서. 저희 마음이 슬기를 얻으리이다. 돌아오소서, 주님, 언제까지리이까? 당신 종들에게 자

비를 베푸소서. ◎

○ 아침에 당신 자애로 저희를 채워 주소서. 저희는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주 하느님의 어지심을 저희 위에 내리소서. 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주소서. 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실어 주소서. ◎

제2독서 | 콜로 3,1-5.9-11

복음환호송 | 마태 5,3

◎ 알렐루야.

○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

복음 | 루카 12,13-21

영성체송 | 지혜 16,20 참조

주님은 하늘에서 마련하신 빵을 저희에게 주셨나이다. 그 빵은 누구에게나 맛이 있어 한없는 기쁨을 주었나이다.

시들지 않는 재산



이경상 바오로 주교 | 서울대교구 보좌주교

오늘 제1독서에서 ‘코헬렛’은 시종일관 인생과 세상사의 허무를 선언합니다. 선인들이 오랫동안 추구해 왔던 지혜도 몰락했고, 인간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 기울이는 온갖 노력마저도 소용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하느님을 두고도 오직 인간적 지혜와 이성만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신앙에도 환멸을 느끼게 되고, 결국 선이라 여겨지는 모든 것이 무상하여 인간은 결코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코헬렛은 절대적인 계시에 관한 집단적인 갈망을 드러냅니다. 이 갈망은 하느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세상에 오셔야 메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가족 간의 유산 분쟁을 해결해 달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중재인으로 세웠단 말이냐?”라는 예수님의 대답이 의문을 품게 합니다. ‘왜 개입을 거부하실까? 혹시 더 강한 이의 폭정과 강요를 묵인하시는 건가?’ 그러나 그것은 복음의 메시지에 반(反)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문제의 근본, 즉 불화와 증오, 불의를 초래하는 원인을 제거하고 싶어 하십니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 있지 않다.”

그분은 물질적 재화를 경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본질적인 유산에 관심을 두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

람들이 상속받을 하느님 나라(마태 5,3 참조)와 어려운 처지의 형제자매들을 섬긴 이들을 위해 천지창조 때부터 준비된 나라(마태 25,34 참조) 그리고 썩거나 더러워지지 않고 시들지 않는 상속 재산(1베도 1,4 참조)을 염두에 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를 설명하기 위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인 농부의 안중에는 아내, 자식, 친구, 친척, 밭에서 고생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의 삶의 모든 공간, 심지어 하느님의 자리마저도 농작물과 헛간, 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재산이 그의 우상이며 다른 모든 것은 지워버렸습니다. 그의 회계장부와 지혜는 그야말로 허무입니다. 코헬렛이 기다린 예수님께서는 오직 사랑만이 영원하며 영원히 지속된다는 본질을 다루고 싶어 하신 겁니다.

오늘 제2독서에서 사도 바오로는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 인간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 버리고, 새 인간을 입은 사람입니다. 새 인간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모상에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지면서 참지식에 이르게 됩니다.”라고 하면서 세례로 새로 태어난 우리도 불순물을 걷어내는 작업을 계속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 세상의 화려한 언변과 논리로 포장된 수많은 주장들이 결국 코헬렛이 “허무로다.”라고 선언한 ‘가치 없는 일’ 내지는 ‘거짓말’이 아닌지 깊이 성찰해야 하겠습니다.



허무로다, 허무!

성화 해설

화가는 왕관과 주교관, 보석 및 귀금속 장식품으로 세속과 종교의 권세와 부를 나타내고 악기와 화구로 예술의 허영을, 갑옷과 무기로 무력의 허세를 보여줍니다. 중앙의 황금 접시에는 비너스의 불행한 연애가 장식되어 있는데 인간 애정의 허망함을 상징합니다. 피라미드처럼 쌓인 정물의 왼쪽 뒤편에는 ‘Vanitati S.’(허영심에 희생됨)라는 문구가 새겨진 석판이 놓여 있어, 이 모든 것의 허무함을 암시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옛 인간의 행실을 벗어 버리고 새 인간을 입어 하느님 앞에서 부유한 사람이 됩시다.

오주열 안드레아 신부 | 삼양동(선교)성당 주임

영명 축일과 말의 생일



황유지 사라 | 문학평론가

대개는 자신의 생일과 일치하는 축일을 가진 성인의 이름을 세례명으로 삼는다 했으나 제 생일과 축일을 같이 하는 성녀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음력 생일까지도요. 또 의미 있는 날이 언제일까를 고민하다가 '내 말(馬)의 생일'이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0월 9일, 성녀 사라의 이름을 세례명으로 택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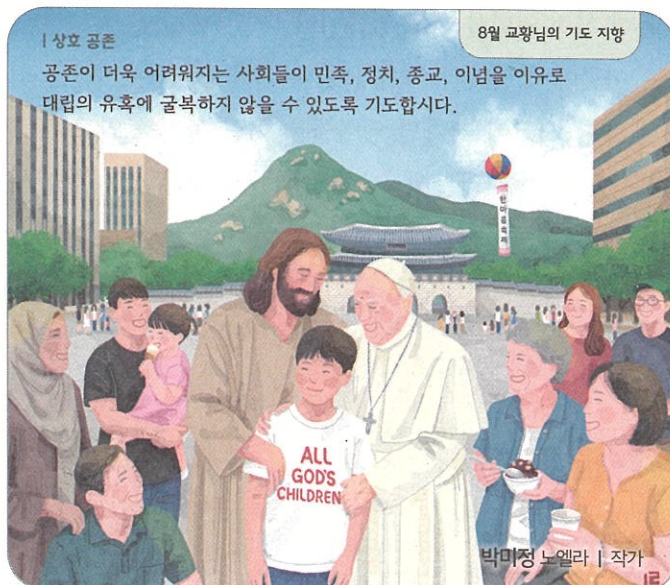
제가 신춘문예에 당선되었을 때 어머니는 제가 처음 말을 하던 때를 회상하며, 말이 안 트여서 좀 늦는다 싶었는데 첫 말이 완전한 문장형이었다는 이야기를 무슨 영웅 설화처럼 들려주었습니다. 지금도 어머니는 아이들이 저마다 타고나는 것들이 있어서 때가 되면 자연히 그것이 발현되는 것으로 믿는 경향이 있는데, 이십 대의 어머니 역시 그랬나 봅니다. 아이에게 말을 걸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말을 하는 것으로 알았던 걸까요? 나름으로 짐작해 보건대 한 살 아래 동생을 배고 낳는 과정과 그 아이가 아프다는 데 이르러 제가 다소 뒤로 물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큰 몫을 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문장으로 첫 말을 시작했을지는 몰라도, 그 뒤로 집에서 무얼 말하거나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초등학생이 되었는데 이제는 그만 입이 붙어버리기라도 한 건지 자기소개를 해야 할 때도, 선생님 질문에 답을 해야 할 때도 의지와 달리 입이 열리질 않았으니까요. 다행히 제 입은 4학년이나 되어서야 조금씩 열렸습니다. 그럼에도 다 큰 지금도 여전히 소통은 어려운 영역이라 여깁니다. 차라리 학술 토론은 괜찮습니다. 제게는 일상어가 가장 어려운 말이고 그중에서 힘든 것은 언쟁입니다. 특히나 그것이 오해 같은 걸로 더럽혀졌을 때 어떻게 그 얼룩을 걷어내고 진실을 밝혀야 하는지 잘 몰라 그런 일에 끼지 않고 외면하면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너 그렇게 고고하냐.”는 반

응 아니면 더 더러운 얼룩을 묻히는 식이겠습니다.

제가 첫 말을 완전한 문장으로 구사한 것은 어머니의 뿌듯함과 달리 말이 묵고 묵어 터져 나올 때가 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뱉어진 것일 테고, 그럼에도 말이 어려운 사람이라 글을 쓰는 사람이 된 거라 여깁니다. 말이 든 글이든 언젠가는 열매가 익어서 툭 떨어지나오듯 그렇게 영글고 자라는 게 아닐까요. 말의 무게를 이겨내지 못하고 대나무 숲에서 임금님의 비밀을 발설해 버린 우화는 비밀의 무게와 동시에 말의 무게, 그 날개 달린 말의 ‘뛰쳐나감’이 말의 본성임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은 그토록 전진하려 하는 데다 무겁고 무섭기까지 한 것입니다. 해서 말과 글은 그 무게를 필요로 하는 방향으로 때에 맞게 잘 보내주는 일이 중요합니다. 자잘한 일에는 입을 다물고 필요한 때에 말할 수 있는 것은 용기이면서도 무엇보다 말을 잘 다스리는 힘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내 입을 뚫쳐나갈 말이 나의 수준입니다. 때로 붙들어 매고 자주 길들이면서 그러다 꼭 필요한 때에 그 말에 세차게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제 영명 축일이 ‘말의 생일’인 까닭입니다.



아이를 품은 용기 있는 엄마의 자립을 응원해 주세요



“아기를 혼자 출산했는데, 분유랑 기저귀 살 돈이 없어요. 도와줄 가족도 없어서 갈 곳이 없어요.” 갓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고, ‘마음자리’를 찾아온 미연(가명, 20세) 씨의 첫 마디였습니다.

수영(가명, 22세) 씨는 “임신 5개월인데 남자 친구가 계속 낙태하라고 협박해요.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며 배가 불러오며 막막해진 현실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간절히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가 운영하는 ‘마음자리’는 출산 지원형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입니다. 예기치 못한 임신과 출산으로 절망 끝에 선 위기의 미혼 한부모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찾아오는 마지막 피난처입니다. 경제적·사회적 여건이 되지 않아 아이를 키우기 힘든 상황에서도 홀로 아이를 낳고 키우기로 용기를 낸 엄마들을 위해, ‘마음자리’는 출산부터 양육, 자립까지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든든한 친정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엄마와 아이가 함께 머물 수 있는 기간은 최대 2년. 시간이 지나면 엄마들은 어린 아기를 안고 홀로 세상에 나가야 하는데, 시설을 떠난 뒤 마주하는 바깥세

상은 생각보다 훨씬 더 냉혹합니다. 경력 단절, 원 가족과 관계 단절로 아이를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 자립을 준비하기는 어렵고, 육아와 생계를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현실은 버겁기만 합니다. 간혹 아이가 아프기도 하면 힘들게 구한 일자리를 잃을까 걱정되어 마음 편히 쉬는 일조차 어려운 상황에 놓이기 일쑤입니다.

이렇게 현실적인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아 홀로서기가 힘든 엄마들을 위해 시설에서는 입소 기간 동안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마음자리’에서는 시설의 유휴 공간을 리모델링해 엄마들이 바리스타와 제과제빵 자격증을 공부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실습 공간, 지친 몸과 마음을 돌볼 수 있는 심리 치료실 및 산후 회복 공간을 제공하고, 소규모 자립형 사업장 실습으로 제조와 판매 경험을 쌓아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연습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준비는 ‘마음자리’의 의지만으로는 완성되기 어렵습니다. 자립을 준비하는 제조 및 실습 공간에 합당한 설비를 갖추고 위생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성모님과 요셉 성인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 머물 곳을 찾아 헤매셨던 것처럼, ‘마음자리’도 엄마와 아이들이 안전하게 머물며 새로운 희망을 키워갈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엄마들이 담대히 세상에 나갈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자립 공간을 마련하는 일에 여러분의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더해 주세요. 여러분의 정성 어린 손길이 모일 때, ‘마음자리’는 생명과 희망이 넘치는 이 시대의 작은 베들레헴이 될 수 있습니다.

후원 계좌 | 우리은행 1005-803-271075 (재)바보의나눔

8월 2일~9월 5일까지 위의 계좌로 후원해 주시는 후원금은 ‘마음자리’를 위해 씁니다.

기부금영수증은 (재)바보의나눔에서 발급합니다.
무통장 입금 후, 아래의 방법으로 신청해 주세요.

기부금 영수증 신청

- ① 우측 QR코드 입력(www.babo.or.kr/hand)
- ② 전화 신청: 02)727-2507 (재)바보의나눔



(재)바보의나눔은 하느님의 종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님께서 보여주시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향한 사랑과 나눔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2010년 설립된 전문 모금 및 배분 기관(특례기부금단체)입니다.

서울주보 홈페이지(<https://cc.catholic.or.kr>)에서 지난 사연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의 손길〉은 ‘천주교 서울대교구’와 ‘(재)바보의나눔’이 함께하는 국내외 지원 사업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국내외 가톨릭 사회복지 단체를 후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균형 (성사론)



전인걸 요한보스코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수

그리스도인은 신앙과 삶 사이에서 한쪽으로 치우쳐 사는 것을 경계합니다. 신앙 따로, 삶 따로 살아가는 모습은, 신앙이 현실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과 일상 사이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 출발점은 인간에 대한 올바른 이해여야 합니다.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시대에 따라 이 두 요소 중 어느 하나를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배제하는 경향이 나타나곤 했습니다. 고대에는 육체를 ‘영혼의 감옥’이라 여겨 터부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기도에 몰입하고 싶지만 피로와 졸음으로 집중할 수 없을 때, 육체는 고귀한 영혼의 갈망을 방해하는 불완전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반면, 현대에 들어서는 영혼이 ‘육체의 감옥’이라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변을 살펴보면 스트레스나 우울함 같은 심리적인 문제로 신체적인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완벽한 외형을 만든다는 신념 하에 강박적으로 육체를 학대하거나 외모에 따라 자존감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현대인의 다친 ‘영혼’은 몸에 죄책감을 덧씌우며, 몸을 억누르는 새로운 감옥처럼 작용합니다.

이러한 양극단에서 무엇이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을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성사’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추상적 관념이나 보이지 않는 이상으로 오

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살과 피가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구원의 길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셨습니다. 또한 먹고 마실 수 있는 빵과 포도주라는 물질적 형상 안에 현존하시며, 우리의 육체적 감각으로 그분을 느낄 수 있게 해 주십니다.

또 그리스도의 성사는 율법주의라는 영혼의 감옥에서도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율법주의가 구원을 명목으로 자기 검열을 반복하게 했다면, 그리스도께서는 무상의 은총을 성사의 형식으로 주셨습니다. 이 은총은 우리의 노력에 대한 대가가 아닌, 거저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간혹 교우들은 성사에 대해 ‘주일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식의 강박과 부담으로 느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사는 예수님의 구원 업적에 대해 자녀들이 자발적으로 느끼는 감사와 찬미를 전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사는 단순한 예식이 아니라, 오시는 그분을 우리의 거처에 모셔, 우리가 하느님과 이웃을 위해 살아가도록 하는 힘의 원천이 됩니다.

우리는 영혼과 육체가 함께 어우러진 존재입니다. 영혼 없이 육체적 유희로만 살 수 없고, 육체 없이 정신적 만족만으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신앙은 생각으로만 지키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의 현신으로 살아 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과 마음을 온전히 그리스도의 감실 앞에 가져감으로써, 영혼과 육체가 함께 거룩해지고, ‘신앙을 삶으로 실현하는(fides qua)’ 균형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심과 같이



유하선 로사 | 청년꾸르실로 체험 및 봉사자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께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이번 주 주일인 8월 3일은 신기하게도 저의 생일입니다. 30여 년 전 무더웠던 여름날, 만삭이었던 어머니는 가족과 함께 계곡으로 휴가를 떠나셨습니다. 무리하셨는지 그날 양수가 터졌고, 휴가철이라 응급실에 수술해 줄 수 있는 의사가 없어 저는 어머니와 생사를 오가며 꼬박 하루를 버틴 후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간절히 바랐던 저희 집안에서는 딸인 저를 탐탁지 않게 여겼고,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병실에 있는 어머니께 상처 되는 모진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다른 많은 어머니들이 그러하듯, 자신의 힘들었던 시절의 이야기를 딸인 저에게 들려주셨고, 저는 어려서부터 은연중에 '나는 환영받지 못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언니와는 다르게 가족에게 애정을 갈구하였고, 관심 받기를 원했으며 감정 기복이 심한 아이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반에 전학 온 친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아주 예쁘고 차분하며 천사같이 착한, 이름마저 '성스런'이었던 그 아이는 모태신앙이었고 저는 그 친구를 따라 성당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신비롭게 보이는 '스런'이가 좋아서 다녔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어머니도 친구분의 전교로 같은 성당에서 교리를 받으셨고, 언니 또한 친구의 인도로 성당에 나가게 되

어 결국 우리 집에서 아버지를 제외한 모든 여자가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첫걸음이 없었다면, 하느님을 알게 된 지금의 저도, 제 뱃속의 '축복이'도 없었을 것이라 생각하니 성당으로 이끌어 준 자매님들과 초대해 주신 주님께 참으로 감사드리게 됩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지금 저는 아이를 잉태하고 있습니다. 정말 희한하게도 뱃속 아이가 딸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제가 아들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찰해 보니, 어렸을 때의 상처가 무의식적으로 남아 아들이 더 귀하다고 여기고 있었고, 제 생일을 케이크 없이 울며 끝낸 기억들과 함께 8월 예정인 이 아이가 내키지 않았던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이 소중한 아이를 통해 저의 과거 속 깊은 상처의 뿌리를 다시금 보게 하셨고, 그로 인해 제가 알게 모르게 걸려 넘어졌던 과거들을 치유해 주고자 하셨던 것 같습니다. 늘 함께하시며 잘 이겨내게 이끌어주셨던 기억들과 많은 선입견을 품게 했던 경험을 재정립하여 과거에서 벗어나 함께 나아가자 하시는 듯합니다.

'축복이'를 키우며 저를 사랑하는 부모님의 사랑도 새롭게 깨닫게 해 주시고 하느님의 사랑도 더 느끼게 되리라 믿습니다. 과거의 상처로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형제자매님들이 주님의 끝없는 사랑을 깨닫고 치유되길 기도합니다.

8

복자 정광수의 벽동 교회



정민 베르나르도 | 한양대학교 국문과 교수



초창기 조선 교회 지도자였던 정광수가 주문모 신부님의 편지를 김건순에게 전달하는 모습을 그린 그림. (탁희성 화백, 절두산 순교성지 제공)

1801년 신유박해 당시 사학죄인들의 공초 기록인 《사학징의》는 교회 모든 관련자들의 진술이 종횡으로 얹혀 있습니다. 그물처럼 촘촘히 얹힌 인물들의 관계 속에 교회 조직의 세부가 촘촘하게 드러납니다.

벽동은 복자 정광수 바르나바를 주축으로 형성된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그는 1799년에 여주에서 상경해, 미리 점적어둔 마당 넓은 집을 웃돈을 주고 사서 그곳에 몇 칸의 집회 공간을 새로 지었습니다. 처음부터 이 집은 교회의 공적 자산이었습니다.

옆집에는 광주(廣州)에서 1795년에 상경한 심낙훈이 여동생인 동정녀 심아기와 함께 살고 있었고, 반대편에는 공주에서 온 신자 김홍철이 살았습니다. 경기도 고양에서 1795년 봄에 이사 온 조섭 예로니모가 그 옆집에서 여동생 동정녀 조도애 아나타시아와 함께 살았지요. 정광수의 행랑채에는 충청도 강경에서 올라온 신자 이중필이 살았습니다. 정광수의 교리서를 소지했다가 체포된 최경문은 그 구역의 통수(統首), 즉 통장이었습니다. 결국 구역 전체가 교우의 집이었던 셈입니다.

정광수는 이 집에 주문모 신부를 모셔와 미사 참례를 가졌습니다. 강완숙과 홍익만, 최필제, 최해두 등 초기 교회의 핵심 인물들이 신부와 함께 사흘간 집중 학습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일종의 교회 지도자 연수회가 열렸던 것입니다. 정광수의 여동생 정순매 바르바라는 교리 교사의 역할을 수행했던 듯하고, 장인 윤현은 인근 안국동에 살며 교회 일을 도왔습니다. 윤현의 아내 임조이, 딸 동정녀 윤조이, 계집종 신옥 등의 공초가 따로 남아 있습니다. 윤현은 훗날 유배지에서 《자책》을 썼던 최해두의 장인이었습니다. 근처 김치 가게 주인 최조이 이사벨라와 딸 성조이 마르타까지 포함하면 당시 벽동 일대는 거의 천주교 조직에 의해 한 구역이 장악되어 철옹성처럼 에워싸인 구역이었습니다. 정광수의 아내 윤운혜는 윤유일의 조카였고, 그녀의 언니는 복자인 동정녀 윤점혜 루시아입니다. 얽히고 설킨 인맥이 어마어마합니다.

《사학징의》의 부록 〈요화사서소화기〉에서 가장 많은 물건이 쏟아져 나온 윤현, 김희인, 정광수 세 집의 압수 품은 모두 정광수의 것이거나, 그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정광수의 구역은 실제로 당시 조선 교회의 성물 교리서 보급 제작소의 역할까지 맡았던 것입니다. 이 막강한 벽동 교회 조직은 두려움을 못 견딘 어린 여종 금이(今伊)의 자백으로 한 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이처럼 《사학징의》는 초기 교회 조직의 세부와 운영 방식까지 들여다 볼 수 있는 짚코드입니다. 그간 우리 교회사 연구가 각 개인의 시성시복에만 관심을 쏟은 나머지, 기록의 입체성에 너무 소홀했던 것은 아닐까요? 살아남기 위해 고급 정보를 누설했던 배교자의 진술 속에 우리가 놓친 더 많은 진실이 담겨 있는 것은 아닐까요?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나를 찾아서

내용: 진정한 자기를 이해하고 나의 정체성과 자신의 고유한 영성을 발견·견고하게 하여 프란치스코 영성을 살게함 / 문의(접수): 02)6364-2204, 010-3781-2204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때: 8월 30일(토)·31일(주일) 9시30분~17시30분
 곳: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정동) / 회비: 15만원

명동 청년·3545+ 청년성서모임 그룹원 모집

모집과정: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 사도행전(예정) / 문의: 010-4891-3540 (문자)
 대상: 20세~45세(가톨릭 신자) / 모집: 8월 9일~10일·16일~17일(7시 미사 전후), 성당마당 부스
 개강미사 및 그룹원OT 필수 참석 /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카페(ourbible3545 또는 /ourbible) 참조

모집

박물관 안내봉사자 모집(절두산순교성지)

활동기관: 한국천주교순교자박물관(합정동), 천주교서울대교구역사관(명동) / 문의: 02)3142-4504
 대상: 세례받은지 3년 이상된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의 교우 / 모집기간: 8월 18일(월)까지
 교육: 8월 23일(토)~31일(주일) 매주(토)·(주일) 2주간 진행 / 접수: 온라인(절두산순교성지 홈페이지 참조)

미사

새천년복음화학교 후원회 월례 미사

미사: 조성풍 담당 신부 / 문의: 02)753-8765
 때, 곳: 8월 21일(목) 낮 12시, 가톨릭회관 3층 강당

故 변종찬 마태오 신부 선종 1주기 미사

때, 곳: 8월 11일(월) 오전 11시, 대신학교성당(해동) / 문의: 02)2216-0961 답십리성당 사무실

마리아사제운동 체나콜로와 성모산심미사

때: 둘째주(토) 8월 9일 10시~13시
 곳: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문의: 010-7142-0513

군중후원회 월례 미사·특강

특강: 조해용 신부 / 문의: 02)776-0457
 때, 곳: 8월 4일(월) 14시, 국군중앙주교좌성당(전철 4호선 신용산역 1번 출구, 용산우체국 뒤 왜곡개성지 내)

예수성심전교수도회 후원회 미사

때: 8월 8일(금) 11시~14시 / 접수 필수
 곳: 본원 성당(전철 3호선 지축역 10번)
 문의: 02)379-8091, 010-6311-8071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성서인문학 강좌

대상: 후원회원, 성서인문학 강좌에 관심있는 분
 때, 곳: 8월 6일(수) 14시(미사)·15시(강좌),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 강사: 김병수 신부
 문의: 02)3673-2525 미사, 02)3673-2528 강좌

서소문박네거리 순교성지 성모승천대축일 미사

때: 8월 15일(금) 오후 3시
 곳: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콘솔레이션 홀
 초봉헌 예식이 있습니다 / 문의: 02)3147-2402

안내

서울베네딕도 상담센터(서울베네딕도수녀회)

곳: 돈암동 / 전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 제공기관
 개인·가족상담, 모래놀이 상담 / 문의: 010-2199-3439

카리따스 알코올회복센터

알코올의존자 당사자 주·야간 교육, 가족교육 운영
 자녀교육: 고통받고 있는 성인자녀를 위한 교육·매주(수) 19시 / 문의: 02)521-2364
 회복을 위해 카리따스알코올회복센터와 함께해요

교매심리상담소(도미니코 수도회)

상담을 통한 치유와 성장이 있는 따뜻한 동행
 내용: 가족, 부부, 갈등, 심리, 영성성장
 방법: 대면, 온라인, 전화 모두 가능
 문의: 010-9916-5798 노경덕 신부(상담자)

가톨릭대학교 '제12회 이원길 인본주의상' 공모

가톨릭 인본주의를 삶으로 실천하며 사회에 기여한 개인·단체 공모 / 상패 및 상금 5천만원 수여
 홈페이지: bwl.catholic.ac.kr
 문의: 02)2164-4646 가톨릭대학교 학부대학운영팀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전문병원, 중독중점 입원 및 외래 통원 치료(도박·인터넷 게임) / 홈페이지: www.karf.co.kr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 / 문의(진료·입원): 031)810-9200
 곳: 고양시 전철 3호선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가톨릭뇌은행 뇌기증 희망자 모집

치매와 파킨슨병 등의 퇴행성 뇌질환의 극복을 위해 사후 뇌기증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상: 성인 누구나(만 19세 이상) / 문의: 02)2258-7660
 관련기관: 과거부 산하 한국뇌은행
 기관: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가톨릭뇌은행

대전해수욕장 요나성당(연수원) 운영

대전해수욕장 관광 및 휴양, 개인 피정, 매일미사
 대전교구 성지순례를 위한 숙소로 이용 가능
 참고(인근 성지): 갈매못 순교성지, 서짓골 성지, 청양 다락골 성지 / 홈페이지(yonaresort.com) 참조
 방법: '요나성당 연수원' 검색 / 문의: 041)934-7758

진애인 심리상담센터

곳: 명동 / 02)587-9207(http://jinain.com) 토요일상담 가능

전문 심리상담	불안, 우울, 분노, 공황장애, 강박적 행동, 부부, 가족간의 갈등, 대인기피 등 마음투자 정부지원금 신청 해당기관
---------	---

봄길 심리상담연구소(마리스타 교육수사회)

전문상담: 청소년, 개인, 가족, 단기부부상담 / 첫회 무료
 곳: 합정 / 문의(예약): 010-8981-8356 (전화상담 가능)

한국여성생활연구원 창립47주년 행사

때, 곳: 8월 30일(토), 가톨릭회관 7층 강당
 공연(대륙학교유랑단), 작품 전시, 시낭송
 지도: 나원균 문시놀 / 문의: 02)727-2471

유관단체 알림

다솜터 심리상담소

대인관계, 부부, 유학생, 사별, 우울, 영성상담
 담당: 이찬 신부 / 문의: 010-8146-7655

떼제노레 기도모임·주일 미사 / 문의: 02)744-0840

대상: 하느님을 갈망하는 어른·청소년·청년
 때, 곳: 매일 세번재(토) 8월 16일·9월 20일·10월 18일 15시45분~17시45분, 햇살사목센터(주최, 해화로2길20) 성당

베리타스심리상담센터 / 문의: 02)776-7726

심리상담 및 모래놀이 치료	가톨릭회관 501호(명동) / 정서적·심리적인 어려움이 있는 아동·청소년·성인, 부부갈등, 우울증, ADHD, 공황장애, 보다 더 행복한 삶을 위한 상담을 원하는 분, 심리검사
강좌	시니어 예술심리 캘리그라피·내 마음을 쓰는 시간(수시 모집), 뇌건강을 위한 심리 여행 8월 20일~10월 19일 매주(수) 10시~12시(7주)

직원모집

한국티스타 직원 모집(계약직)

분야: 사무국 직원(사무·회계) / 입사지원서 이메일 접수
 자세한 내용은 한국티스타 홈페이지 참조

서울대교구 특수사목사제관(성복구) 주방근무자 모집

자세한 내용은 서울대교구 홈페이지(https://aos.catholic.or.kr)-소식-직원모집 안내 참조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계약직 직원 모집

분야: ① 행정 사무(저작권 등 업무), ② 도서·정기간행물 편집 / 이메일(mano@cbck.kr) 문의
 서류: 주교회의 홈페이지-알림마당-소식 참조
 8월 22일(금) 14시까지 접수

성수동성당 주방근무자 모집

분야: 주방근무자 1명(계약직) / 이메일 문의
 대상: 세례받은지 3년 이상된 신자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합격자 개별 연락)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채용시까지 사무실 방문·우편(우 04774, 성동구 성덕정길23 성수동성당 사무실) 및 이메일(kyeon@seoul.catholic.kr) 접수
 제출된 서류는 채용 확정 후 안전하게 폐기하겠습니다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개별적 협의	수녀원(미아동)	010-5604-1882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 사랑의 딸회	8월 16일(토) 14시~17시	수녀원(경기도 군포)	010-4889-1830
작은예수수녀회	수시	수녀원(군자)	010-8867-3217
천주교서울교구제천교회	수시	선교회	02)749-4596, 010-2749-4596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신간

하느님 나라의
말씀 씨앗

서울대교구 사목국 노인사목팀 지음
가톨릭출판사 | 50쪽 | 1만원
문의: 02)727-2385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탁상 달력형 교리 교재 《하느님 나라의 말씀 씨앗》이 수정·보완을 거쳐 새롭게 출간되었다. 이 교재는 어린이의 첫영성체 준비나 청소년·성인의 견진 교리에도 활용할 수 있다. 교리 교사가 부족한 본당에서 신자 교리 재교육 교재로도 널리 사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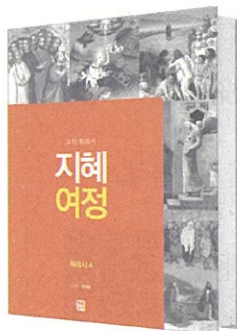


신간

신유년에 핀 꽃

황보윤 지음
바오로딸 | 344쪽 | 1만5천원
문의: 02)944-0944

이 책은 세 번 배교한 이존창의 신앙 여정과 심리 변화를 밀도 있게 그린 소설로 사제품을 받기까지의 우여곡절과 박해 상황을 주문모 신부의 편지글을 통해 볼 수 있다. 정약종, 강완숙, 황사영 등 생생한 인물들과 허구 인물 김원삼이 팽팽한 긴장감을 더하며, 브뤼기에르 주교가 조선을 향해 떠나는 장면으로 이어지며 조선 선교의 역사를 예고하는 구성을 갖췄다.



신간

지혜 여정 - 복음서4
(요한 복음서)

한재호 지음
생활성서사 | 200쪽 | 1만6천원
문의: 02)945-5987

《지혜 여정 복음서4 요한 복음서》는 표징, 시간, 성전 등 요한 복음서의 핵심 주제를 따라가며 그 신학적 깊이와 영적 통찰을 풀어낸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치유와 회복의 표징들을 통해 새로운 창조와 하느님의 현존을 묵상하게 한다. 또한 단순한 해설서를 넘어 요한 복음서의 영성을 삶 속에서 살아가도록 이끄는 여정의 안내서다.



연극

조립식 가족

때, 곳: 8월 6일(수)~31일(주일), 지구인아트홀
공연시간: (평일) 19시30분, (토) 15시·18시, (주일) 15시 / 입장권: 전석 4만원
문의: 070-7620-3163
전화 예약 후 관람 당일 서울주보나 모바일의 본 안내문 자참시 주보 1부로 4명 40% 할인

연극 <조립식 가족>은 보육원에서 자란 이들이 설 연휴에 다시 모여, 웃음과 눈물 속에서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각자의 결핍과 상처, 그리고 위태로운 현실 속에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으며 '가족의 의미'를 되묻는 이야기로, 따뜻하면서도 몽글한 여운을 남긴다.

YouTube

가톨릭튜브

유튜브 검색창에 '가톨릭튜브'를 검색하세요.



가톨릭튜브는 가톨릭교회의 여러 가지 소식과 정보, 가톨릭 문화를 즐겁고 유익하게 전합니다.

서울주보 필진들의 신앙과 삶의 이야기를 담아 소개하는 <서울주보 인터뷰>, 교회 내 다양한 장소를 대신 방문해 소개하는 <대신 가드립니다>, 재미있는 영화를 교회의 시각에서 바라보며 감상하는 <사제관 옆 영화관>이 있습니다.

가톨릭튜브는 서울주보에 담지 못한 내용을, 영상을 통해 깊이 있게 전달합니다.



(코너 1) 서울주보 인터뷰



(코너 2) 대신 가드립니다



(코너 3) 사제관 옆 영화관



제2시대문·마포지구 대표본당

진주교연회동성당

http://www.yeonhui.or.kr

03727 서울시 시대문구 연회로 64-14

본당사무실 : 323-4450~1, 4456

FAX : 336-2233

지구장신부 : 최성기(헨리코)

주 임 신 부 : 유시창(베드로)

부주임신부 : 백종원(마르코)

보좌신부 : 최원영(스테파노)

연령회장 : 이범지(루시아) 010-6288-1683

주일 미사	• 토요일 : 오후 3시(초등부), 오후 6시 • 주 일 :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 30분(중고등부반대), 오전 11시(교중) 오후 6시(청년 20, 청년 30)	유아세례	홀수달 첫째 주일 오후 4시 30분
		혼인면담	매월 셋째 주 일 오후 3시
평일 미사	• 월요일 : 06시 화요일 : 10시, 19시 수요일~금요일 : 06시, 10시 토요일 : 06시	성모신심미사	매월 첫째 토요일 오전 10시

“미소짓고, 인사하고, 청진하자!”

● 성모승천대축일 미사

8월 15일 (금)	오전 7시
	오전 10시30분 (중고등부·반대)
	오전 11시 (교중)
	오후 6시 (청년)

● 연령회 미사

• 일시 : 8월 5일(화) 오전 10시
 매일 첫째째 화요일 10시에 연령회 미사(선종하신
 분들을 위한 미사)를 봉헌하고, 미사 후 돌아가신
 연령을 위해 연도를 바칩니다.

● 성소후원회 미사

• 일시 : 8월 19일(화) 오전 10시
 * 미사 30분 전부터 묵주기도를 시작합니다.
 * 미사 후 201호에서 회합이 있습니다.

● 수험생을 위한 100일 기도

• 기간 : 8월 5일(화) ~ 11월 13일(목)
 • 일시 : 매일 오후 8시 / 소성전
 •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초등부 주일학교 여름 가족캠프

• 일정 : 8월 8일(금) ~ 10일(주일)
 • 장소 : 용문청소년수련원
 • 참가비 : 40,000원
 50,000원(주일학교 미등록자)
 • 문의 : 허보운 미카엘라 교감 (010-8484-4374)
 * 8월 9일(토) 오후3시 미사는 없습니다.



● 중고등부 주일학교 여름캠프

• 주제 : 여름을 거머쥔 우리는
 • 일정 : 8월 8일(금) ~ 10일(주일)
 • 장소 : 용문청소년수련원
 • 참가비 : 60,000원
 70,000원(주일학교 미등록자)
 • 문의 : 가브리엘 교감 (010-9480-2763)
 * 8월 10일(주일) 오전10시30분 미사는 없습니다.



● 청년 여름캠프

• 일정 : 8월 29일(금) ~ 31일(주일)
 • 장소 : 용문청소년수련원
 • 신청 : QR 스캔 후 신청서 작성
 • 문의 : 사도요한 캠프장 (010-4815-1794)
 * 8월 29일(금) 저녁에 성당에서 버스로 이동합니다.
 * 8월 31일(주일) 오후6시 미사는 일반미사로
 봉헌됩니다.



* 안전하고 즐거운 캠프가 되도록 기도 바랍니다.

● 8월 병자영성체는 없습니다.

● 연성회(70대) 모임

• 일시 : 8월 21일(목) 오후 5시 30분 / 201호
 • 문의 : 요셉 총무 (010-3891-4300)

● 청년「이레밴드」단원 모집

• 모집파트 : 드럼 및 연주자 전 파트 (상시모집)
 • 연습일시 : 매 주일 오후 3시
 • 문의 : 필립보네리 단장 (010-8276-0512)

● 오라데(교중미사성가대) 단원 모집

• 대상 : 영세 교우 및 예비신자
 • 테너, 베이스 파트 환영
 • 문의 : 히야친타 단장 (010-6788-1588)



● 문화학교(주일학교) 학생 모집

• 과목 : 미술, 기타/우쿨렐레, 바이올린, 캘리그라피
 • 수업일정 : 9월 6일(토) ~ 11월 22일(토)
 매주 토요일 수업
 • 신규/재수강 신청 : 8월 22일(금)까지
 • 등록 : 8월 27일(수)까지
 • 문의 : 최윤희 아네스 (010-4538-5665)



● 교무금 책정 현황 (2025. 7. 27)

총세대	책정세대 (책정률)	납부세대 (납부율)	2024년 책정률	2024년 납부율
2,002	703 (35.1%)	664 (33.2%)	42.9%	41.6%

교무금 계좌번호	우리은행	137-04-110875
----------	------	---------------

● 감사헌금 (7월 21일 ~ 7월 27일)

오혜정 일만원 객천모 오천원
 강경탁 오십만원 김재균 오만원
 허재순 오십만원 김희진 오만원
 권정자 일십오만원 박옥남 오만원
 함영동 일만원 신옥분 삼만원
 익명 삼십육만원

● 우리들의 정성 (연중 제17주일)

교 무 금 10,317,000원
 주 일 헌 금 5,625,500원

입당	329	봉헌	332,340,342	성체	198,187,182	파견	400
----	-----	----	-------------	----	-------------	----	-----



주 님 당 신 은 대 대 - 로 저 회 안 식 처 가 되 셨 나 이 다